연중 제 31 주일 2013 년 11 월 3 일 (다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4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제 2 독서 2 테살 1,11—2,2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루카 19,1-10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 월 3 일	전 니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1 월 10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1 월 17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1 월 24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0 월 27 일	$ 276.00	_	$ 60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교회는 죽은 모든이, 특히 연옥의 영혼들이 하루 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기간입니다.

성체조배: 11/14(목) 저녁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시' 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고백성사: 주일미사 30 분 전 또는 예약
호세 노보아 신부님께서 주일 미사시작 30 분 전 (주일 오전 7:30 분)에 고백성사를 해 주십니다. 한인공동체 신자분들은 평소와 같이 한국어로 고백성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 안식년: 8 월 1 일 - 12 월 6 일
안식년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성령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8 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하오니, 기도회 단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수) 주제: '죽음을 넘어서는 하느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

가을 하마이카 축제: 11/3(오늘) 오전 9 시-오후 5 시
가을 하마이카 축제가 11 월 3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즐거운 축제에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임원회의: 11/12(화) 저녁 8 시
11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11 월 12 일(화)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전원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영화 감상: 11/24(주일) 주일미사 및 친교시간 후 오전 10 시
영화제목: '울지마 톤즈'
아프리카 오지 수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위대한 사랑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

대림 피정강의 및 판공성사: 12/8(주일) 오후 3 시
성 아그네스 성당의 주임신부님이신, 예수회 소속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님께서 베이커스필드 성당 한인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실예정입니다.
강의 주제: '고통의 의미'

주보공지사항
주보에 공지할 사항(예: 새로운 신자, 신자 경조사, 모임 등)이 있으면, 손 아놀드에게 메모나 이메일(ys7son@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주일 주보 공지사항 **마감일은 목요일**까지입니다. 마감이후 전달된 사항은 다음주 주보에 공지됩니다.

말씀의 이삭

일용할 양식, 미사

차동엽 노르베르또 신부 | 인천대교구

영성체를 고대하는 열망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영성체 전에 우리는 다시금 목욕재계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기도로써 성체를 고대하고,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영육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 아구스티노(354-430)는 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사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 아우그스티노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목욕을 통해서 몸 전체를 씻는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얼굴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화해의 표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평화의 인사는 영성체의 서식입니다. 교우 상호간에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 16,16 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베드로 1 서 5,14 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물봉헌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5,23-24 참조). 이런 의미에서 예루사렘의 성 치릴로(315-387)는 입맞춤 즉 평화의 인사를 화해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예식은 신랑과의 일치 즉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7 세기경부터 영성체 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곧 평화의 인사는 일치의 표시이며 영성체는 주님과의 일치와 교유들 서로의 일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인사는 본당공동체 또는 미사를 봉헌하는 교우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화와 일치를 나타내고 확인하는 기도이고 인사입니다.
갈망으로 '영성체'하고, 자리로 돌아와 일치에 잠긴다.
영성체를 하기 위해 제대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주님, 제에게 어서 오소서"라는 화살기도를 바치십시오. 제대 앞에 나왔을 때는 깊이 절하며 나에게 오실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라는 의미로 '아멘'하고 신앙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자리로 돌아간 뒤에는 눈을 감고 침묵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자 갈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 당신은 치유자이신 그분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영성체 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재를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 시간은 하느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그분 앞에 털어놓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로버트 드그란디스 신부는 사람들이 성체를 받아 모신 다음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성체를 모시러 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에는 성체 안에 주님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아는 가톨릭의 기본지식이다. 만일 당신아, 성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치유에 연관되는한 영성체는 최고의 효험을 보일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